

# “오늘 또 하나의 역사적 순간 맞았다”

## 결속 다진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트럼프 대통령  
한반도 완전한 평화 정착  
한미 동맹 발전 등에 한뜻  
文 “한미 동맹 위대한 발전”  
트럼프 “좋은 파트너십...  
저희가 한 일 분명 대단”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비무장지대(DMZ)에서의 북미 정상 회동이 한반도 비핵화를 다시금 추동하기를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인수 회담 후 이어진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오늘 또 하나의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저의 노력이 아주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라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짧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생각된다”며 “(김 위원장에게) 짧게 인사를 건넬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두 정상은 “역사적 자리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그 순간을 두 분(한미 정상) 앞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긍정적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북한에도 큰 기회”라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2년 전쯤만 해도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전쟁의 공포가 있었던 한반도이지만 지금은 그러한 공포가 많이 줄어들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 “트럼프 대통령의 피스메이커 역할에 많은 한국민들은 감사해 하고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좋은 파트너십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안될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도 알지만 잘 될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보좌관은 “역사적 자리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그 순간을 두 분(한미 정상) 앞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긍정적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북한에도 큰 기회”라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제가 책임하는 동안 한미 동맹은 큰 발전이 있었다”며 “안보 면에서도 발전이 있었고 경제 협력 면에서도 교역이 확대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등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갈수록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양국이 노력 중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란 평화프로세스가 성공하면 한미 동맹은 그야말로 위대한 동맹으로 빛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다들 존중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한 일은 분명히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제가 책임하는 동안 한미 동맹은 큰 발전이 있었다”며 “안보 면에서도 발전이 있었고 경제 협력 면에서도 교역이 확대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등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갈수록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양국이 노력 중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란 평화프로세스가 성공하면 한미 동맹은 그야말로 위대한 동맹으로 빛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다들 존중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한 일은 분명히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제가 책임하는 동안 한미 동맹은 큰 발전이 있었다”며 “안보 면에서도 발전이 있었고 경제 협력 면에서도 교역이 확대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등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 트럼프 “金 위원장과 조합 좋아... 대북 제재 해제? 서두르지 않을 것”

### 한미 정상 기자회견서 밝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저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좋은 케미스트리(조합)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저와 김 위원장 사이에 많은 분노가 있었지만

지금의 사이가 좋아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6·25전쟁) 유해 송환도 이뤄지고 (북한에 있던) 인질도 구출됐고, 더 이상 미사일·핵 실험도 없다”며 “한국이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고 일본 하늘에도 미사일이 날아가지 않게 된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에

(주한미국) 대사의 영전을 받으며 들어올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지금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 특히 한국과 북한 간 반복적 상황 때문에 문제가 있고 많은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자신이 취임했을 때와 비교해 남북미 간 대화가 이어지며 비핵화 정세가 진전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제재가 아직 해제되지 않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서두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걸음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느낌이 좋다”며 “추가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도 오늘 만남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의제에 대해 얘기했다. 무역, 군사 등 다른 의제도 많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여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특별한 분이다. 국가를 사랑하고 문 대통령을 보좌하고 사랑하는 분”이라고 밝혔다.

## 다시 시동 거는 ‘북미 비핵화 협상’

### 트럼프 대통령 “2~3주간 실무팀 구성해 협상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에서 전격 회동하면서 교착상태가 이어지던 북미 비핵화 협상에도 돌파구가 마련됐다.

북미 정상이 친서 교환을 통해 보여줬던 신뢰를 판문점 ‘번개 회동’을 통해 전 세계에 과시하면서 지금까지 한반도 정세를 이끌어온 ‘불다운’ 정상 외교의 동력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도 확인했다.

특히 북미는 실무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주도로 2~3주간 실무팀을 구성해 협상하겠다”면서 “앞으로 많은 복잡한 일이 남았지만 우리는 이제 실무진의 논의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북미 정상의 비무장지대(DMZ) 만남 가능성이 제기될 때만 해도 북미 정상이 정전 66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에서 만난다는 역사적 상징성과는 별개로 비핵화 협상의 실질 진전으로 이어질지는 예단하기 힘들다는 관측이 많았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단발성 ‘쇼’가 아니냐는 시선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북미 정상이 사실상 3차 정상회담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예상보다 훨씬 긴 1시간 가까이 대면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실무협상 재개에까지 합의하면서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지지부진하던 비핵화 여정이 다시 가속 페달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의 실무협상에 극히 미온적이었던. 지난 27일에도 권경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담화를 통해 “미국과 대화를 하자고 해도 협상 자체가 제대로 돼 있어야 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과 협상을 해야 하며, 온전한 대안을 가지고 나와야 협상도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알림**

**제주의 속살 거닐며 힐링하세요**

**2019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6차 참가자 모집**

한라일보사는 4월부터 12월까지 매달 2회 주말을 이용한 힐링 프로그램인 '2019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를 실시합니다.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으로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제주자연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를 활용한 생태관광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에코투어 프로그램은 제주자연의 속살을 직접 보고 걸으면서 일상의 쉼을 위로받고 치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19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프로그램 참가 신청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ecotour.ihalla.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6차 에코투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일 시: 2019년 7월 13일 8시 ~ 16시  
▶대 상: 국내외 관광객 및 제주도민 (20세 이상 성인 참여 가능)  
▶모집인원: 40명 (선착순 마감)  
▶코 스: 남조로 ~ 물영아리 앞 마흔니숲길 ~ 의귀천길 ~ 수직동굴 ~ 마흔니오름 ~ 숲길 - 마흔니오름 - 사려니길 - 남조로  
▶집 결 지: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정문, 08시 대형버스로 이동  
▶준 비 물: 배낭, 등산화, 긴팔, 긴바지, 모자, 장갑  
▶신청기간: 2019년 7월 1일 ~ 7월 9일  
▶참가접수: 한라일보 인터넷 에코투어 홈페이지(<http://ecotour.ihalla.com>)  
▶참 가 비: 1만2천원 (여행자보험·중식비 등 포함)  
▶입금계좌: 농협 301-0104-3643-81 (예금주: 한라일보사)  
▶문 의: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사무국 ☎ 064)750-2291, 2151

한라일보

친환경 전통건축  
[한옥에서의 건강한 삶],  
전통 건축 **선자연**이 실현합니다.

**시 공**

- 전통건축(살림집, 사찰)
- 전원주택 시공 및 리모델링
- 전통 구들 시공
- 문화재청 등록 [문화재수리기술자] 직접 시공
- 전통건축 대목이 직접 시공참여 기술지도
- 나무, 흙, 돌 등 천연재료를 사용한 친환경 건축
- 제주 전통건축 양식 및 기후 반영한 설계 시공
- 품질 우선 시공, 합리적인 건축비

**상담 : 010-5308-5796, 064-764-0488**

전통한옥문화재사랑 **선자연**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濟)州(州) 리모델링**  
辛(辛) 一(一) 祚(祚)

**누수탐지·방수**

신축/중축/리모델링/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단독주택 전채 리모델링/지붕개량/  
옥상방수/페인트공사/창문/도어문/대문 교체  
불박이장/싱크대/신발장/도배/장판  
물리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제주도 “토종” 태양광 기업**

**태양광**  
“누가” 시공 하세요?

**발전 사업**

- 초기자본 **無**
- 토지소유자 무자본 발전소 운영!
- 유지/보수/관리 전문
- 친환경 스크류 공법

**가정용 태양광**

- 제주에너지공사 선정 기업
- 가정용 태양광전문 설치 기업
- 고장난 태양광 수리(A/S)

200여개 사업 실적 보유  
제주 최대 태양광 발전사업기업

**(주)나눔에너지**  
064-745-0420 / 010-6765-8853  
[www.nanoomenergy.com](http://www.nanoomenergy.com)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정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